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자문단 간담회 개최

4월 용역 착수 이후 현재까지 마련된 기본계획 재수립 내용 점검

자문단,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기업의 수요에 부응해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8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 4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마련된 발전 전략을 점검하고, 그동안 도출된 주요 의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 및 청관계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새만금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푸드, 관광·MICE의 3대 허브와 메가

시티 경제권 구상안과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기존의 새만금 기본계획의 일부 변경 수준이 아니라, 기업 등 수요자 입장을 적극 고려하여 새만금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첫째,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산업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업(수요자) 맞춤형 전략과 실행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글로벌 푸드허브 분야는 농생명용지와 신항만,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하여 국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원료를 수입하고 가공해서 수출하는 글로벌 식품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만금 신항만의 수용능력도 현재 5만 톤에서 8만 톤급 이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미래를 내다보고 항만 배후 부지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마지막으로, 관광·MICE 분야는 2030년 국제공항 개항과 크루즈선 입

항 등 새만금이 아시아 관광과 국제회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과 단계적 인프라 구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이차전지와 정밀화학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성장하며,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면서,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 새만금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재수립으로 대한민국 100년 먹거리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기본계획 재수립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허브이자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주 본사에서 LX 뉴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디지털 국토정보 선도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LX, 선도기업으로 새 도약 선언

2030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강도 높은 혁신 예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가 지난 28일 전주 본사에서 'LX 뉴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디지털 국토정보 선도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날 선포식은 '더 나은 미래, 스마트한 국토, 디지털 국토리더 LX'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전 직원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CEO를 비롯한 본사 관리자·직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LX 뉴비전'은 지적측량수요 급감, 디지털 국토 전환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LX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립되었다.

LX공사는 2030년 영업 수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핵심 주력사업과 공공성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미래융합사업 매출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또한 핵심 주력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위기 대응 관점에서 전략과제를 개선하는 등 중장기 경영목표를 구체화했다.

특히 전략적 성장 사업 모델로 국토자산(국토망 조사·관리), 국토정보(데이터 통합 관리), 국토관리의 Value-up 3대 모델을 제시했다. /김육기 기자

전북은행,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 27일부터 확대시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현재 시행중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운전면허증에 이어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확대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담아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전북은행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운용하며 추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및 국가보훈등록증(25년 1월)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발급하며 이후 시스템 안정성 검증을 거쳐 내년 1분기 안에 전국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은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QR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위해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경제위기 극복 위해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기익스프레스 성과를 공유하고,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현장 애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윤인대 차관보 △강기룡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대희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한편,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정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및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 시작에 앞서 '민관합동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규제혁신 성과발표'를 맡은 추문경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노력해준 덕분에 중소기업이 선진한 현장규제 100선 중 25건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대표사례로 부산 미음산업단지에서 참고업 입주 허용과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 완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 완화(3



년~4년) 등을 들었다.

중소기업 애로를 신속하게(30일 이내)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와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임사투 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법안 조속 추진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등 6건과 현장 애로가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만큼 정부 부처가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중기중앙회와 기획재정부가 윈윈 플랫폼이 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육기 기자

년~4년) 등을 들었다.

중소기업 애로를 신속하게(30일 이내)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와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임사투 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법안 조속 추진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등 6건과 현장 애로가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만큼 정부 부처가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중기중앙회와 기획재정부가 윈윈 플랫폼이 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육기 기자

거래실적 3조8000억원 달성

aT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식재료 전문 전자조달플랫폼 자리매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가 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aT)'이 올해 역대 최대 거래실적 3조 8000억원을 달성했다.

aT는 일찍이 2010년부터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2년 9월부터 군부대,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국내 공공급식 전 영역에서 활용토록 기존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공공급식통합플랫폼(aT)' 운영을 시작했다.

공공급식 수요기관은 플랫폼 안에서 식단편성부터 입찰 계약, 정산까지 식재료 거래 관련 모든 업무를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계약자재, 재고관리, 보조금 집행현황, 품목별 소비 동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지역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관리가 더욱 편리해졌다.

그 결과 2010년 학교급식 연 거래실



적 36억원으로 시작한 지 14년 만에 1000배가 넘는 양적 성장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거래실적 3조 8000억원을 달성해냈다. 특히 플랫폼 확대 개편 2년 만에 이용 지자체가 34개소에서 60개소로 약 80% 크게 늘었다. 이용 지자체가 늘면서 지자체별 시스템을 별도 운영할 때 중복적으로 낭비되는 국가 예산도 약 500억원 절감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aT는 올 한해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대통령상 △대한민국지식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한국유통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 정부포상 3관왕을 달성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청, 입주기업과 함께하는 투자설명회 열어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회장 한철)는 지난 27일 '국내·외 기업 초청 새만금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새만금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투자기업의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혜택과 기업입주부터 공장 가동까지 전(全) 과정에 걸친 윈윈 지인 정책 등 새만금 산업단지의 투자이점과 투자·입주 절차가 세부적으로 안내됐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글로벌 기술매관 경쟁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에 7,500여원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총 1조 500여 원을 투자하고 공장을 건설 중인 백광산업의 장영수 대표가 기업입주 성공 사례 발표를 맡아 새만금 입주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하며 입주기업으로서 느낀 새만금만의 장점을 설명

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기업 덕분에 올해도 1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